

후백제~조선왕조 역사골격 조성 본격화

전주시,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지대 구현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 조성 구상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전주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가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대형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전주의 역사자원의 후백제 및 조선왕조의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끌어 관광적 가치를 높여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하고, 이를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관광요구에 부응하는 관광지대를 구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시는 풍부한 후백제~고려~조선의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단순 문화재 중심의 발굴·보호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될 수 있도록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되지 않



전라감영 전경

은 관광지로 인식된 전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드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도록 만들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대 고도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해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면 역사도시로서 골격이 완성되고, 천년 전주의 정체성 회복으로 활력있는 역사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전주부성 일원 등 구도심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전주의 핵심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덕진공원과 건지산 등은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웰니스 생태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또 모악산 일대에는 한옥마을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역사문화가 담긴 숙식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정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의 방향을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향후 시는 정책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법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뿌리라는 자부심이 있는 당당한 도시로,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 종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미로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산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경제자산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을 새롭게 조명해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정신건강의 날' 시민 마음 충전

전주시, 12일까지 다양한 행사·캠페인 진행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세계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7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정신건강 날'로, 해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자식을 보급하기 위한 정신건강 주간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회복을 돋기 위해 '마음건강 지키기 6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마음건강을 지키는 6가지 행동 요령은 △지나친 걱정 하지 않기 △규칙적인 생활 유지 △마음이 즐거워지는 취미나 여가시간 갖기 △스트레칭, 걷기, 운동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 이어가기 △힘들면 혼자 이겨내지 말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도움 청하기 등이다.

/김재훈 기자

헝가리 민속예술인협회장, 전주 방문

다양한 문화교류 위한 논의·전통문화·예술 등 체험

헝가리 민속예술인협회장 일행이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에 매료됐다.

전주시는 이자르토 가브리엘라 헝가리 민속예술인협회장 일행이 지난 6일과 7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조정해 헝가리와 전주의 무형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교류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자르토 가브리엘라 협회장은 헝가리 문화예술계의 핵심인사로, 자국 전통예술 관련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협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자국에서 열린 헝가리 최대 민속·전통 분야 축제인 '2022년 헝가리 국가민속 축제'에 한국을 주宾으로 초청하는 등 최근 한국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현지에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전주 방문 첫날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천년한지관, 국립전통문화유산원, 전주한옥마을 등을 찾아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로서 전주의 매력을 엿봤다.

또한 우리돌이터 미루달에서 진행된 가무악전 공연을 관람하는 등 전주만



의 전통공연예술을 즐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전주 방문 일정에서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과 면담을 통해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확답도 나눴다.

서배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헝가리의 대표적 문화기관인 민속예술인협회장이 다른 곳이 아닌 전주를 방문해 매우 뜻 깊다"며 "헝가리민속공예축제 등을 통해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의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홍보하기로 논의하는 등 헝가리를 중심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까지 우리 문화영토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산악사고 대비 현장행정 지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7일 모악산 금곡사 탐방로 일원을 방문해 '산악사고 대비 현장행정'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악산 등산로 위험지역 예찰 활동 △등산로 위험요소 확인 △모악산 119구조구급함 점검 △산악안전시설 육안 점검 △산악사고 대비 구조대원 인명구조훈련 토의 및 격려 등이다.

김장수 서장은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산행을 즐길수 있도록 산악사고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기관 구축사업에 선정돼 현재 라이브 커머스에 최적화된 5개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를 갖춘 '소담스퀘어 전주'

/김재훈 기자

이 맛이 청정리거다!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 100%

TERRA FROM AGM

축! 전주매일 창간